

04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의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기술  
Hillstate Lake Songdo: Energy-saving technology

05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혁신기업' 월트디즈니  
The Walt Disney Company which can transform imagination into reality

10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전문가와 만남  
Hyundai E&C's mentoring group meets experts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흥보실 | 주소 110-793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http://news.hdec.kr



## 제2영동고속도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향해 달린다

The 2nd Yeongdong Expressway

**News**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를 잇는 총 연장 56.95km의 제2영동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1조 5397억원이 투입되는 민자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컨소시엄의 대표를 맡아 총 7공구 중 3·6·7 세 개 공구를 시공 중이다. 지난 2월 중순 찾은 6공구 현장은 대부분의 공정을 마무리하고, 도로 포장 준비와 터널 전기·기계 공사가 한창이었다. 오는 11월 개통과 함께 서울~원주 간 차량 운행시간도 54분으로 23분 줄어든다. 2018년 개최 예정인 평창과의 접근성 역시 크게 개선돼 중부 내륙권의 지역 발전을 견인할 전망이다. ▶ 관련기사 6, 7면

The 2nd Yeongdong Expressway is a private finance project worth 1.5397 trillion won to build a 56.95-kilometer highway linking Gwangju, Gyeonggi-do, and Wonju, Gangwon-do. Leading the project consortium, Hyundai E&C i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of three zones out of seven. In the zone 6 where most of construction was already completed in mid February, preparation for road pavement and electric and mechanical works for the tunnels are underway. The opening of the 2nd Yeongdong Expressway in November would reduce travel time between Seoul and Wonju by 23 minutes to 54 minutes. The 2nd Yeongdong Expressway is expected to lead to the local development in the central inland region by bringing much improved accessibility to Pyeongchang in which 2018 Winter Olympics is scheduled to be held. ▶ Continued on page 6 and 7.

##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본격 시동

내년 초 착공해 2021년 완공... 계열사 시너지 극대화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비전을 담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가 통합사육자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의 심장부로 태어난다.

내년 초 착공해 2021년 완공하는 GBC는 대지면적 7만9342㎡, 연면적은 92만 8887㎡ 규모로 들어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총 6개의 건물 중 4개를 전시문화, 이벤트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105층 통합사육의 103층까지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가 업무 공간으로 쓰고 104층과 105층은 전망대로 꾸민다. 또한 중앙에는 대규모 공연이나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도시 광장'을 마련한다. 향후 통합사육에는 현재 서울 양재동과 수도권 일대에 흩어져 있는 임직원 1만3000명이 입주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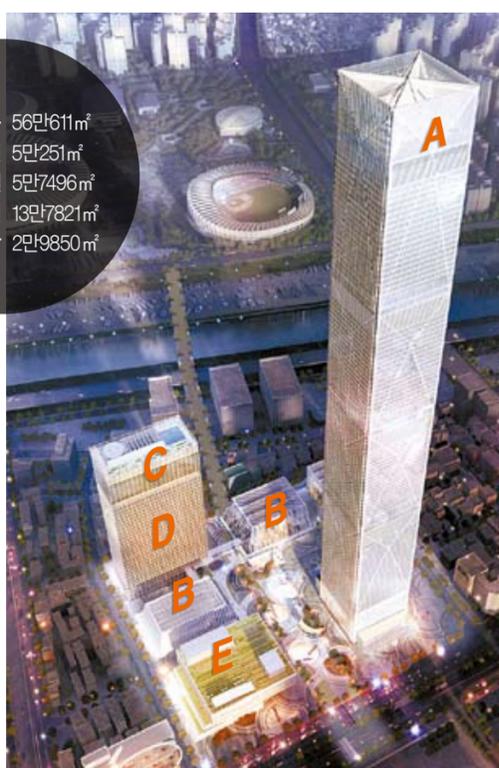
특히 GBC의 핵심 건물인 통합사육은 '정사각형 수직타워'로 설계돼 건축학 관점에서 기념비적 건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사각형 수직타워란 각 층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같게 하고 고층과 저층의 면적을 비슷하게 유지한 고층빌딩을 가리킨다. 보통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은 바람과 무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층

으로 갈수록 층별 면적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통합사육은 층별 면적 차이가 크지 않은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 방식대로 건축하기 위해 최첨단 공법도 총동원된다. 건물 외벽 안쪽에 비대칭의 'X-브레이스' (건물 변형 방지를 위해 대각선으로 있는 건축부재)를 설치해 바람 하중에 의한 건물 움직임도 효과적으로 제어한다는 계획.

향후 통합사육 건물은 30여 개 계열사들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업무 공간이자 서울시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국내 MICE 산업의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합사육을 포함한 GBC 디자인은 국제공모 결과 글로벌 설계회사인 SOM(Skidmore, Owings and Merrill LLP)과 NBBJ 안이 선정됐다. GBC의 설계책임 건축가에는 한국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김종성씨가 선임됐다.



- A 통합사육 56만611㎡
- B 전시장 컨벤션 5만251㎡
- C 호텔 5만7496㎡
- D 업무시설 13만7821㎡
- E 공연장 2만9850㎡

## Hyundai Motor Group to kick off the Global Business Center

The so-called Global Business Center (GBC) of Hyundai Motor Group will be developed into a new heart for the country's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and exhibitions (MICE) industry as well as an integrated office building.

The construction will begin in early next year and be completed by 2021. The GBC will be built in a land area of 79,342 square meters and with the total floor space of 928,887 square meters. Out of six buildings, four will be used for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The 105-story integrated office building will be utilized for business offices of Hyundai Motor Group affiliates and feature an observation platform on its 104th and 105th floors. In the center of the complex will be the "City Square" to offer large-scale performances and cultural events. In the future, 13,000 employees currently working in Yangjae-dong, Seoul, and capital areas will move into the Hyundai Motor complex.

Notably, the integrated office building to be designed as a square-shaped high-rise tower will become a monumental structure from an architectural perspective. Most of over 100-story towers usually tend to get narrower as they increase in height in order to reduce resistance to wind and load pressure. Unusually, however, the GBC is designed not to have a big difference in floor areas.

For the realization of the design, cutting-edge construction methods including X bracing will be made use of. Using diagonal members of X bracing is expected to control the building movement resulting from wind load in an effective way.



## 그림사 소식

### 기아차, 기아드림 장학금 5억 지원

기아자동차가 19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소하리공장에서 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아 드림(Dream)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기아자동차 최준영 전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 서울·경기 인근 장학금 수혜자와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아차 노사는 초등학교생 27명(각 180만원), 중학생 61명(각 180만원), 고등학교생 92명(각 240만원), 2·3년제 대학생 4명(각 300만원), 4년제 대학생 15명(각 500만원) 등 199명에게 총 4억6620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아드림(Dream) 장학금'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사고 유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아차 노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으로, 2012년 첫 시행된 이래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고 있다.



### 현대엔지니어링, 창립 42주년 기념식 및 신기업문화 선포식 열어

현대엔지니어링이 11일 계동사옥 본관 대강당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 및 신기업문화 선포식을 가졌다. 김위철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네 가지 실행 목표 ▶'비전 2020'의 내재화 ▶미래성장동력 사업 발굴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인재 육성 ▶신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



한편, 12일에는 창립 42주년을 기념해 다문화가정 자녀와 장애아동 등 180여 명을 목동 메가박스로 초청, '창립 기념 문화나눔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임직원은 자원봉사자로서 나서 아이들과 영화 '쿵푸팬더 3'를 관람하고 문구세트 등을 전달했다.

### 힐스테이트 녹번, 26일 분양

우리 회사가 오는 26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53번지 일대를 재건축한 '힐스테이트 녹번'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녹번은 지하 3층~지상 20층, 전체 13개 동, 전용면적 49~118㎡ 총 952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260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49㎡ 9세대 ▶59㎡ 51세대 ▶84㎡ 200세대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85㎡ 이하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특히 힐스테이트 녹번은 우리 회사가 은평구 녹번동에 공급하는 첫 번째 힐스테이트로, 지하철 3호선 초역세권이라는 점에서 지역 내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녹번의 모델하우스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16번지(녹번역 1, 2번 출구 앞)에 위치하며, 26일 개관한다. 문의 02-389-7404



## 현대건설·SK텔레콤 '통합 스마트홈 서비스' 개막

### 18일 양사 MOU 체결...올 하반기 입주단지부터 적용

우리 회사가 SK텔레콤과 스마트홈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8일 현대건설 계동 본사에서 우리 회사 정수현 사장과 SK텔레콤 장동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사는 우리 회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에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도입해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기능형 아파트를 선보인다는 데 합의했다.

스마트홈 서비스는 우리 회사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세대 에너지 관리·절감 시스템, 원터치 절전·보안 시스템, 유비쿼터스 안전시스템 등 힐스테이트 홈네트워크에 SK텔레콤의 스마트홈 플랫폼을 연동해 통합 '사물인터넷(IoT) 서



우리 회사 정수현 사장(사진 왼쪽)과 SK텔레콤 장동현 사장이 스마트홈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MOU 체결로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은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연동된 조명·냉난방기기가스

차단기 등 빌트인 기기들과 SK텔레콤 스마트홈에 연동된 냉장고·청소기·에어워셔 등 가전기기(입주자 소유)들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

게 된다. 우리 회사는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시작으로 서울·수도권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통합 IoT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SK텔레콤과의 MOU 체결을 통해 아파트뿐 아니라 주택사업 전반에 첨단기술력을 적용해 주택시장의 IT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으로 사람·사물·공간·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

## Hyundai E&C and SK Telecom launch 'integrated smarthome service'

Our company has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SK Telecom for cooperation in the smart-home service sector. Our company CEO Jung Soo-hyun and SK Telecom CEO Jang Dong-hyun attended the agreement ceremony held in the head

office of Hyundai E&C in Gye-dong, Seoul, on February 18 and agreed to cooperate in providing Korea's most advanced intelligent apartments by introducing SK Telecom's smart-home service to our company's Hillstate apartment brand. The smart-

home service aims to provide Internet of Things (IoT)\* services by linking Hillstate's existing home network systems, including the energy management and reduction system, the one touch power-saving and security systems and the ubiquitous safety system,

to SK Telecom's smarthome platform.

\*IoT (Internet of Things) refers to the hyper-connected internet where humans, physical objects, spaces and data are all connected by the internet to create, collect, share and exchange information.



### 전경련회관, 美서 '올해의 건물' 선정

우리 회사가 시공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이 미국 유력 건축물 웹사이트 '아메리칸-알키텍(American-Architect.com, 이하 AA)'으로부터 '2015 올해의 건물'에 선정됐다. AA는 1994년 설립된 건축물 웹사이트로 전 세계 50개국, 2500개 이상의 건축물 및 건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2월 완공된 전경련회관은 지하 6층, 지상 50층 규모로 건물 내부로 조경을 끌어들이는 아트리움과 계절에

다른 햇빛 유입량을 조절하는 커튼월 시스템 등을 도입한 친환경 최우수등급 건물이다. 한옥의 처마선에서 모티브를 얻은 전경련회관의 외관은 태양광 패널을 통해 시간당 600kWh를 생산하고 있다.

전경련회관은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부문 우수상'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우수상' '녹색건축인증 최우수상' '2015 Civic Trust Awards 국제건축부문 최우수상' 등에 선정된 바 있다.



### 1884억원 규모 주한미군사령부 지하작전시설 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최근 미 육군 극동공병단(FED)이 발주한 1884억원 규모의 주한미군사령부 지하작전시설(KorCom OPS Center) 공사를 수주했다. 이 현장은 용산 미군기지의 팽택 이전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도 팽택시 팽성읍 캠프프리 내에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3만5083㎡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공사다. 작전시설 내부에는 지하방어를 설치해 적군의 폭격에도 안전하게 작전지휘를 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국방부 201 시설공사 등 전쟁방호 설비시설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공사를 수주하게 됐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1463일.

### 2015년 영업이익 1조원 육박... 전년 대비 2.9%↑

우리 회사가 1월 27일 지난해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19조1221억원, 영업이익 9866억원, 당기순이익 584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0.0%, 영업이익은 2.9% 각각 증가한 규모다. 반면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매출은 해외 대형공사 현장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UAE 사브(SARB) 해상원유처리시설 공사, 우즈베키스탄 칸디 가스처리시설 공사 등 해외 대형공사가 본격 진행되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지속적인 원가 개선 노력 등으로 영업이익은 1조원에 육박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공정위원회 과징금 등

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저유가 기조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으로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견고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양질의 해외 대형공사 매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신입사원, 글로벌 사회봉사활동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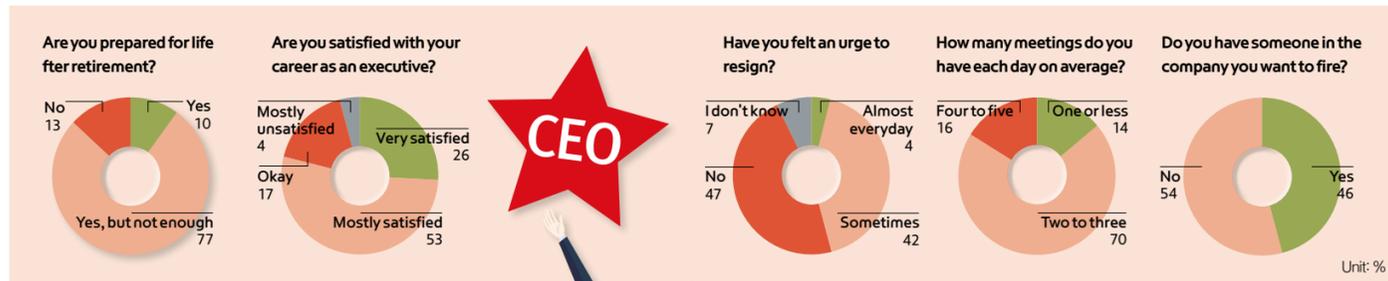
우리 회사 2016년 상반기 신입사원 95명이 11일 미안마 아이들을 위해 밤에도 공부할 수 있는 태양광 랜턴 1500여 개를 만들었다. 태양광 랜턴은 신입사원들이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오는 4월께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브라질 국적의 인턴사원 6명이 필리핀 자연재해 난민들을 위한 희망 티셔츠를 제작해 재

해구협회에 전달했다. 희망 티셔츠는 천재지변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필리핀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이 국제적 에티켓과 다양한 세계문화를 체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로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Brightest 'stars' often stressed, lonely



**Feb 11**  
Executives are often referred to as the "stars" of a company, but many are lonely, stressed and overworked,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Economist, a business magazine.

Becoming a star is obviously a distant dream for new hires, but for department heads, the achievement is a possibility that all too few actually see during their careers.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by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about promotions in 2014, only 7.4 out of every 1,000 employees become executives after dedicating about 20 years to a company.

Although these stars are often the envy of those beneath them in rank, there is more to their daily lives than meets the eye. Economist's survey shows that the stars are often anxious about the temporary nature of their

position and exhausted by having to work through the weekends. When asked about their plans for the future, very few saw themselves as the next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ir company, and most felt financially unprepared for retirement despite an annual salary that averaged over 100 million won (\$83,000).

The magazine surveyed 100 executives from 66 conglomerates and 34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from Jan. 10 to Jan. 23 by email. The 100 executives were 50.5 years old on average and had 4.1 years of work experience as a

company executive.

Even though executives are considered high-income earners, 58 said they're still paying off their mortgage. Only 10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y are well prepared for life after retirement. The most popular choices for after retirement were re-employment (30) and starting a new business (29). Sixty-one people said they often purchase lottery tickets in hopes of striking it rich.

Still, despite the stresses, the stars said they were proud of their jobs. Only four respondents reported dissatisfaction with their status as an executive, while 79 said they were either satisfied or very satisfied. Others said they felt "okay" about their jobs.

Most of the current executives, or 52, said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 to becoming a star was work performance. "In any company, a person with the best knowledge of a specific field is an executive," one of the respondents said.

When asked if there is an employee they would want to lay off, 54 percent said no, while more than 46 percent said yes. There were, though, some executives who confessed they are most stressed when they feel disregarded or alienated by their subordinates.

Executives were also asked the type of employee they would want to work with. The survey presented 20 different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istics, such as meticulous and honest for positive, and pessimistic, lazy and incompetent for negative.

By KOREA JOONGANG DAILY

## 가장 밝은 '별들(임원)'은 때때로 힘들고 외롭다

흔히 임원은 기업의 '별'이라 불린다. 하지만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원이란 외롭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과도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다.

별이 된다는 것은 신입사원들에게는 아득한 꿈과 같고, 부장들에게는 한 번쯤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과 같은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4년 발표한 승진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입사원 1000명 중 단 7.4명만이 20년 근속 뒤 임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은 아랫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 임원들의 일상에는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삶이 존재한다.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원들은 현재의 일시적 직위에 불안을 느끼

고 주말근무로 인해 피곤에 시달리기 일쑤다. 미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사장단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연봉 수준은 1억원 이상(8만3000달러)이지만 노후 준비가 미흡해 경제적 불안을 느낀다.

본 연구는 1월 10~23일 이메일 회수 방식으로 대기업 66명, 중소기업 34명 총 100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0.5세로 평균 임원 경력은 4.1년이다.

임원은 고소득자로 인식되지만 응답자 중 58명은 여전히 대출금을 갚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단 10명만이 노후준비가 잘 돼 있다고 대답했다. 은퇴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30명이 재취업, 29명이 창업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일확천금을 바라고 로또를 산다고 응답한 사람도 6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은 자신의 자리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임원직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4명인 데 반해 79명은 만족스럽거나 매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임원직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현재 임원의 대부분(52명)은 임원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로 업무 성과를 들었다. 응답자 중 한 명은 "어떤 회사에서든 특정 분야의 최고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임원이 된다"고 말했다.

정리하고 대상 직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4%가 없다고 대답한 반면 46%가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임원

들은 아랫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소외된다고 느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고백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의 유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여 가지의 특징이 조사됐다. 긍정·부정적 유형 중 네 개의 복수응답을 선택하게 한 결과, 긍정적인 특징으로는 '꼼꼼하다' '정직하다'가, 부정적인 특징으로는 '비관적이다' '게으르다' '무능력하다' 등이 응답됐다.

### Key expressions

- strike it rich 큰 벼락부자가 되다
- foremost 가장 중요한
- meticulous 꼼꼼한, 세심한

##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comparison 유형



**Q Please compare these two pictures.**

I'm pleased to compare these two pictures. These are related with spring.

On the left, there is a picture of some red roses. They have green leaves too. They are yet to bloom. I want to make dry-flower with them.

On the right, there are some herbs with grey flowerpots. They have name on it with white color. Herbs have light green colors. Someone can use these for dishes.

In my case, I prefer herbs more than flowers. Flowers are so fragrant that attract bees or other bugs a lot. Also, blossoms droop easily.

Herbs can live longer than flowers and it is useful for cooking. And I like their green colors, because I feel relax with it. So, I like herbs more than flowers, blossoms droop easily.

Herbs can live longer than flowers and it is useful for cooking. And I like their green colors, because I feel relax with it. So, I like herbs more than flowers.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 'Deadpool' crushes its competition in Korea, U.S.

Feb 16

Marvel's anti-hero blockbuster "Deadpool" topped both the Korean and North American box offices last weekend.



The comic book adaptation attracted 1.06 million viewers in Korea from Friday to Sunday, representing 43.6 percent of the total movie-ticket sales for the period, according to the Korean Film Council's statistics.

In North America, the movie from 20th Century Fox starring Ryan Reynolds as a foul-mouthed mercenary continued to dominate movie theaters for a second week, earning an estimated \$55 million. Having already grossed \$235.4 million domestically, "Deadpool" - made with just \$58 million - is poised to beco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R-rated movies ever. Globally, the film has made \$491.1 million thus far.

By KOREA JOONGANG DAILY



### 외국인 직원 Talk! Talk!

## I proudly carry the name of Hyundai E&C



TAN BOON LANG, FREDDY (Director, Business Development of Singapore Branch Office)

**Q How long have you worked for Hyundai E&C? What is your role in the company?**

I have been with Hyundai E&C for three decades, 34 years to be exact, and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the Business Development department.

**Q What made you join Hyundai E&C?**

Hyundai E&C was looking for a public relations officer at that time. I took the opportunity for the job interview to explore my capabilities and to learn from an international company like Hyundai E&C. I was pleasantly surprised that I was chosen even though I was a rookie then. That might be as the General Manager made me wait about one hour for the interview, my patience must have impressed him.

**Q You are the only foreign team manager in Hyundai E&C. Do you feel any responsibilities for this?**

I do not feel the pressure at all, as I have grown with this company since its establishment here in Singapore in 1982. I was fortunate to have managers and colleagues who are very supportive of me, which gave me the opportunity to set a goal for this company.

**Q Singaporean employees often**

**say you are the most representative employee of Hyundai E&C in Singapore. What is the secret behind this?**

In a word, I am a humble person. Whether I am in the office or out for meetings with clients or business associates, I proudly carry the name of Hyundai E&C as I have the responsibility to uphold the good name of this company. This gives our clients confidence and trust in me and Hyundai E&C.



FREDDY and his family

**Q Lastl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our readers?**

Retention of staff is critical to the success of a company. Therefore I hope that Hyundai E&C will improve in areas such as employees' welfare, benefits, career progression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 R&D 혁신 스토리

# 전기세, 가스비 고민... 이제 그만 하세요!

## ②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로 알아본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기술

겨울철 한파보다 무섭다는 난방비를 잡고자 내복 입을 생필화하고, 환기도 자제하며 살았건만 별반 나아지지 않은 고지서를 받아든 A씨. 덴마크에서는 전기고지서를 구경 할 수도 없고, 남아도는 에너지로 자동차 충전까지 가능한 '제로플러스 하우스'가 존재한다는데, 과연 꿈만 같은 이야기일까? 글=이영주 / 자료 제공=강기남 대리(그린도시연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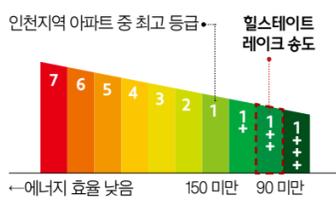
### 국내 최초 1++ 인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우리 회사가 인천에 시공 중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제로에너지 빌딩이란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을 지칭한다. 정부는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각종 법규 및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시범단지로서 선정된 만큼 우리 회사의 그린 스마트 기술이 집대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공동주택 최초로 '에너지효율등급 1++' 인증(그림 1)을 취득해 입주자들은 인천지역 아파트 평균 대비 절반 수준의 전기 및 난방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 보이지 않는 틈새를 잡아라! 패시브(Passive) 기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도시연구팀이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단열 성능을 강화한 패시브 기술이다.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만 잘해도 실내온도를 따뜻하게 유지

그림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에는 벽체와 창호의 단열재 성능을 높이고, 두께를 강화하는 등 법규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다.

그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기밀성(氣密性)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수많은 설비와 배관이 숨겨진 건물의 틈새바람을 잡기 위해 침기(浸氣, 외부 공기가 실내로 침입)와 누기(漏氣, 실내 공기가 외부로 누출) 등 건물 내 공기의 흐름을 철저히 분석해 기밀성능(통기량) 1등급 이상을 취득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에서라면 따뜻한 방 안에서 웃풍으로 코끝이 시릴 일은 없을 듯하다.

### 똑똑한 가사 도우미 액티브(Active) 기술

액티브 기술은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

하거나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기계·설비를 효과적으로 가동해 보다 적극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한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에는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적용돼 세대 내부는 물론 조정 등 공용부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세대 전체에 전력 소비량이 절감된다고 알려진 LED 조명을 설치해 내구성과 비용 절감을 모두 만족시켰다.

하지만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의 에너지 절감 기술의 백미는 그린도시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Smart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는 운영 시스템에 있다(그림 2). 이 시스템은 다음 날의 에너지 사용량이나 각종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미리 예측하기도 하고,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각종 설비를 가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은 일기예보 및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충전 및 방전 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단점이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준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태양광을 충전해 심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익일 흐린 날씨에 예상된다면 값싼 심야 전

력을 사용해 밤사이 미리 충전하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한다. 또한 그린도시팀이 독자개발한 TEEMS(Total Energy &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는 환기 분야 최초로 녹색기술인증까지 취득한 폐열회수 환기시스템(HERV: Hyundai Energy Recovery Ventilation)과 연동해 쾌적한 실내 공기를 열손실 없이 유지시켜 준다(그림 3).

### 사람과 지구를 생각하는 그린시티를 꿈꾸다

임주민의 생활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환경을 에너지 손실 없이 제공해 주는 스마트홈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우리 회사는 2011년부터 그린도시연구팀을 발족해 다양한 친환경 요소기술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오픈한 스마트 오피스인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나 초고층 에너지저감형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그 첫걸음일 뿐이다. 앞으로 이들이 꿈꾸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스마트 시티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삶은 보다 편리한 도시, 그것이 현대건설이 만들어 갈 내일의 공간이다.



## MINI Interview

이정철 부장대우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그린도시연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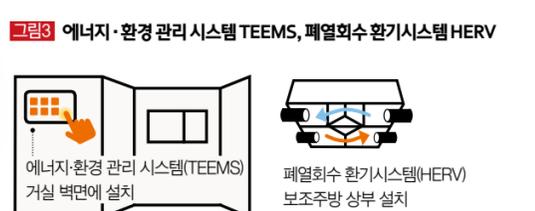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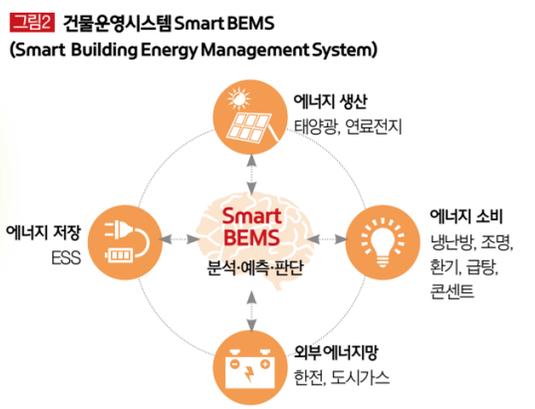


Q 그린도시연구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 팀이며, 지금까지 어떤 연구를 하였나요?

그린도시연구팀은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거주 환경을 구현하면서도 에너지 등 각종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팀입니다. 2014년 준공한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그동안 연구해 온 소규모 기술이 실제 건물에 적용됐는데요. 첨단 기술이 많이 적용된 만큼 지난해에만 2000여 명의 사람이 다녀갈 정도로 성과가 컸던 작업이었습니다.

Q 현대건설이 친환경 주택사업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할까요?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은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경제성이나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의 차이 등으로 기술이 실제 눈앞에 구현되고 적용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곧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 팀은 팀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 차원의 기술이 아닌 도시 차원의 기술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로에너지 빌딩을 넘어 스마트 시티, 친환경 에너지 자급도시 건설을 목표로 그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사업 모델을 발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HERV 시스템을 활용해 환기하면 열 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한, 여름에는 시원한 깨끗한 공기로 교환할 수 있다. TEEMS는 입주자에게 실내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입주자별 생활패턴에 따른 쾌적한 환경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터치 하나로 맞춤형 실내 환경 관리 및 에너지 절약을 구현한다.

## 해외 기업경영 트렌드 ② 월트디즈니

# 해가지지 않는 미키 왕국...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혁신기업'

“디즈니랜드는 언제나 미완성 작품이다. 이 세상에 상상력이 남아있는 한 디즈니랜드는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디즈니 창업자 ‘월트 디즈니(Walter Elias Disney, 1901~1966)’가 남긴 말이다. 그의 말처럼 디즈니사는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구현해 내며 기업 가치를 높여 가고 있다. 월트 디즈니는 창의성, 도전정신이 충만한 자신만의 색깔로 경쟁에서 두렵지 않은 콘텐츠 왕국을 일궈냈고, 기술 혁신은 디즈니사의 DNA가 됐다. 디즈니사는 혁신을 담당하는 ‘이미지니어링(Imagineering)’이란 부서를 만들고 신기술 탐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즈니사의 브랜드 가치 또한 견재하다. 지난해 포브스 기준으로 전 세계 14위, 브랜드 가치는 274억 달러(약 29조 3400억원)다. 애니메이션·영화·TV채널·디즈니랜드·디즈니월드·디즈니스토어까지, 디즈니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글=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사진=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공



### 애니메이션으로 영화계 혁신한 디즈니

월트 디즈니는 20세기 혁신가였다. 2차원 이던 만화를 3차원의 세계로 옮겨왔다. 영상 기술을 애니메이션에 접목시킨 것은 PC를 휴대전화 속에 넣은 것만큼이나 당시로서는 과격이었다. 이후에는 애니메이션을 현실에 구현해 내는 ‘디즈니랜드’를 세웠다.

월트 디즈니는 1923년 21세의 나이에 할리우드에 입성했다. 그는 배우들을 동원해 영화를 찍는 것 대신 혼자서 1923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무명의 어린 소녀와 만화를 결합한 영화인 《앨리스의 날》을 제작하고 이를 소규모 회사에 팔아 첫 번째 성공을 거뒀다. 월트 디즈니는 1924년 봄까지 네 편의 속편을 더 제작하고 여기서 마련한 자본을 바탕으로 1928년 최초의 음성녹음 만화영화 《증기선 윌리》를 개봉했다. 이 영화의 대 성공으로 애니메이션은 영화의 한 장르로 확고히 정착하게 됐으며 이후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의 아버지’가 됐다.

디즈니사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컴퓨터 기술을 결합하면서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히트작엔 예외 없이 신기술이

숨어 있다. 1937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제작할 땐 멀티플레인(multiplane, 원근감에 변화를 주는 촬영기법) 카메라 기술을 도입해 화면에 시각적 깊이를 더했다. 2014년 개봉해, 국내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겨울왕국》을 보자. 눈보라 속에서 눈 입자가 무치고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해, 디즈니는 물리화학적 알고리즘을 개발해 적용했다. 수천 개의 눈 입자 모양을 만든 뒤 각각의 눈 입자를 서로 결합시키는 방식을 스크린에 구현해 낸 것이다.

### ‘원소스 멀티유즈’ 유통채널의 다변화

디즈니사의 더욱 놀라운 점은 영화산업의 경영모델 자체를 혁신했다는 것이다. 당시 메이저 영화사들은 영화를 만들어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이를 보러 오는 관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단순한 경영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디즈니사는 영화 속 캐릭터들을 라이선싱 등을 통해 상품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했다. 그 사업의 씨앗(source)이 된 캐릭터가 《증기선 윌리》

에 등장한 생쥐 캐릭터 ‘미키 마우스(Mickey Mouse)’를 비롯해 ‘백설공주’ ‘피노키오’ ‘아기 사슴 밤비’ 등이다.

디즈니사는 1937년 시계 회사 잉거솔과 함께 최초로 미키마우스를 캐릭터로 한 제품을 제작했고 문구, 그릇 외에 미키마우스 잡지도 출간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1955년에는 디즈니랜드를 제3의 소비시장인 미국 캘리포니아에 오픈했고, 1971년엔 플로리다에 월트디즈니 월드엔터테인먼트를 개장하면서 디즈니 캐릭터 그룹을 형성했다. 일본의 ‘도쿄 디즈니랜드’, 프랑스의 ‘유로 디즈니(나중에 디즈니랜드 파리로 이름을 바꿨다)’, 홍콩의 ‘홍콩 디즈니랜드’는 ‘꿈이 이루어지는 곳(Where Dreams Come True)’이라는 구호 아래 성업 중이다. 이외에도 영화사와 방송국을 인수, 브로드웨이 뮤지컬 제작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다.

디즈니사의 성장 전략은 미국 영화시장의 터닝포인트가 됐다. 20세기 중반 컬러 TV의 대량 보급으로 위기에 처한 미국 영화산업을 구해냈고 이는 현대 영화산업의 핵심 원리로 정착하게 된다. 우리

### 월트의 어록

삼류 기업은 상품을 팔고 이류 기업은 브랜드를 팔고 일류 기업은 소비자의 마음과 지식을 판다.

영감의 99%는 절망 끝에 얻어진다.

좋아하는 것에만 지나치게 빠져들지 마라. 그렇게 되면 다양한 모험을 할 수 없게 된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일단 말을 멈추고 바로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우리는 계속 전진한다. 전진이란 단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 아니라 꿈꾸고 일하며 보다 나은 삶의 요령을 축적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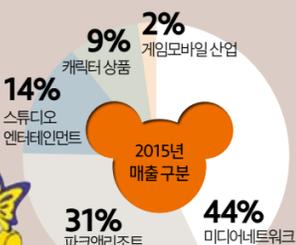
올해 개봉한 애니메이션 《굿 다이노》(위)와 국내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겨울왕국》.

### 나사로 본 디즈니 캐릭터

- 곰돌이 푸 91세** 꿈을 무척 좋아하는 주인공 곰. 동화의 주인공 Winnie the Pooh(윈니더푸)는 원작자 크리스토퍼 로빈 밀론이 가지고 있던 곰 인형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음. 월트 디즈니사가 로빈의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 미키마우스 89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각종 미디어 믹스에 등장하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심벌 캐릭터. 데뷔작은 1928년 월트 디즈니의 세 번째 작품이자 스텝틱 코미디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유명한 《증기선 윌리》.
- 도날드 덕 83세** 월트 디즈니가 오리를 의인화한 캐릭터로 미키의 친구이자, 여지친구로는 데이지 덕이 있음. 보통 세일러복과 선원들이 쓰는 모자를 자주 착용. 특유의 콧방귀는 목소리가 특징.
- 백설공주 80세** 새어머니인 왕비에게 구박을 받고 쫓겨난 뒤 난쟁이들에게 구제되어 생활한 비운의 공주. 1937년 월트 디즈니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는 제목의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작품을 각색함.
- 피터 팬 64세**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J. M. 배리가 만든 소설 속의 인물. 1953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극장가에 선보이며 큰 화제를 모았음.

### 월트 디즈니 컴퍼니 현황

설립연도	1923년 10월 16일
직원수	18만 5000명
자산총액	882억 달러
브랜드 가치	274억 달러



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마이클 포터는 디즈니를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최적의 사업구조를 갖춘 ‘미래형 기업’이라며 극찬했다.

디즈니사는 콘텐츠를 씨앗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는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원칙에 충실히 따랐다. 이는 영화 제작에서 배급, 상영, 투자, 그리고 부가 제품 및 서비스 사업까지 진입하는 ‘스타버스트(Starburst)’식 경영 전략의 한 방식이다. 극장을 통해 상영된 디즈니 콘텐츠는 TV와 라디오, 케이블, 온라인 등을 거쳐 인터넷, 모바일, 극장 공연으로 재생산된다. 또한 디즈니랜드라는 거대 소비시장 안에서 비디오, DVD, 게임, 잡지 및 출판물, 아동교육용품, 생활용품 등 라이선스 콘텐츠를 유통한다. 콘텐츠 유통 인프라를 갖춘 디즈니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가 유통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었고 자체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 광고, 홍보 효과도 동시에 얻게 됐다.

### 글로벌 인수합병으로 위기 돌파

현재 디즈니사는 다섯가지 독자적 사업 영역을 바탕으로 브랜드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다. TV 방송이 주 영역인 미디어네트워크 부문은 2015년 전사 매출의 44%를, 디즈니랜드가 속해있는 파크엔리조트 부문은 31%를 차지하고 있다. ▶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부문(매출 비중 14%)은 영화 사업, ▶ 디즈니 소비재 부문(9%)은 완구, DVD, 잡지 등 사업을, ▶ 인터랙티브 미디어 부문(2%)은 게임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디즈니 명성을 이끌고 있는 부문이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다. 디즈니사는 2000년대 초반 주가 하락에다가 경쟁 업체의 인수 위협 등으로 ‘몰락한 왕국’ 취급을 당했지만, 2005년 밥 아이거 CEO가 다수의 인수합병을 추진해 경쟁이 두렵지 않은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2006년 픽사(Pixar)를 인수한 뒤 2009년 마블 스튜디오, 2012년 루카스 필름 등 유명 콘텐츠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 굵직한 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합병했다. 디즈니사는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했고 《겨울왕국》(어벤져스) 《스타워즈》 등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는 매출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은 2011년 약 6억 달러에서 지난해 약 20억 달러로 급증했다.



## 연중기획 | 현장탐방

#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대동맥 제2영동고속도로 6공구

1 난간 작업과 부대 공사가 진행 중인 판대교 전경. 2 근로자들이 판대교 방호벽에서 철근을 조립하고 있다. 3 판대교 배수관 설치 작업 모습.

## Main artery crossing from east and west of Korea The 2nd Yeongdong Expressway: Zone 6

### Main contractor of the 1,5397-trillion-won project

The 56.95-kilometer 2nd Yeongdong Expressway linking Gwangju-si in Gyeonggi-do and Wonju-si in Gangwon-do is a mega project valued at 1,5397 trillion won to construct 76 bridges, 12 tunnels, 6 interchanges, 3 junctions and 8 commercial facilities. Along with 16 builders, Hyundai E&C participates in the project on a BTO (Build-Transfer-Operate) basis. Responsible for three construction zones among seven, our com-

pany has 29.40 percent of the project worth about 202.5 billion won as the main contractor, the most stake among 16 participants, and we have a 100-percent stake in the construction of zone 6. The 6.54-kilometer-long, 23.4-meter-wide road with four lanes is an approximately 113.6-billion-won project to build three bridges and two tunnels.

Our company received approval for a plan to construct zone 6 of the 2nd Yeongdong Expressway in February 2010 and set out to begin the con-

struction in November 2011. The key constructions in zone 6 include three bridges such as the 605-meter Samsan Bridge, the 70-meter Pandae Bridge I and the 210-meter Pandae Bridge II and two tunnels such as the 615-meter Jijeong Tunnel I and the 2,790-meter Jijeong Tunnel II. As of February 17, in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Jijeong Tunnel II, the concrete lining aimed to get a better landscape of the tunnel and increase its stability was completed, and electric and mechanical works were under construction.

Staff of Hyundai E&C and sub-contractors in the Jijeong Tunnel II.

서울에서 1시간30분가량 달리자 건물로 빼곡했던 차량박 풍경이 달라졌다. 호젓한 산들 사이로 길고 곧게 뻗은 고속도로. 이곳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가는 관문이자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제2영동고속도로 6공구 현장이다. 지난 18일 찾은 현장은 풀린 날씨 덕분에 활기를 띠었다. 현재 공정률은 80% 남짓, 현장 직원들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도로 포장 준비와 터널 전기·기계 공사에 한창이었다. 글=박현의 / 사진=이승기

### 1조5397억원 프로젝트 구간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과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을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는 총연장 56.95km, 교량 76개소, 터널 12개소, IC 6개소, JCT 3개소, 영업시설 8개소를 잇는 총사업비 1조5397억원(보상비 포함)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우리 회사는 GS건설, 한라건설, 포스코건설 등 16개 건설사와 함께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총 7개 공구 중 3(비주간사)·6(주간사)·7(주간사) 등 3개 공구를 맡고 있는 우리 회사는 프로젝트를 이끄는 주간사로 16개 건설사 중 가장 높은 29.40%(2025억여원)의 지분을 갖고 있다. 특히 6공구는 우리 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사다. 전체 연장 6.54km, 폭 23.4m(양쪽 4차로)에 교량 3개소(삼산교: 605m, 판대교: 70m, 판대교: 210m)와 터널 2개소(지정터널: 615m, 지정터널: 2790m)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는 1136억여원이다.

제2영동고속도로 6공구 현장은 2010년 2월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2011년 11월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했다. 6공구 공사의 핵심은 교량 3개소와 터널 2개소 건설. 실제 지난 17일 찾은 제2영동고속도로 6공구 현장 지정터널에서는 미관 향상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터널 상부와 좌우를 콘크리트로 매우는(라이닝) 공사를

끝내고, 터널 내부 전기·기계 공사가 한창이었다. 지정터널은 전체길이 2790m로 광주-원주 고속도로 중 가장 긴 터널. 지정터널 원주 방향은 포장까지 끝났으며, 날이 풀리는 2월 말부터 지정터널 서울 방향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터널 내부 포장을 마칠 예정이다. 605m 규모의 삼산교는 상부 슬래브 타설 및 중앙분리대, 난간방호벽 시공을 끝낸 상태로 난간 작업과 부대공사를 하고 있었다. 삼산교 일부 고소(高所) 구간에는 신기술 '장경간 PSC Beam'을 도입해 장선(Uoist)을 순차적으로 인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하중을 견디게 했다.

### 서울-원주 통행시간 획기적으로 단축

6공구 현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안전관리와 품질이다. 특히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품질 점검을 철

### 서울 상암에서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까지

1시간 30분대 가능 ...

수도권 남동과 강원도 지역 발전에

큰 도움 줄 것으로 기대



2 근로자들이 판대교 방호벽에서 철근을 조립하고 있다.

As for the 605-meter Samsan Bridge, concrete was placed at the top slab, and the construction of the median strip and the protective wall was completed. The guardrail and appurtenant works are underway. The prestressed concrete (PSC) beams are used for some higher sections of the bridge.

**Dramatic reduction in travel time**

between Seoul and Wonju Zone 6 is paying the most attention to safety management and quality. The construction site is conducting quality inspections to thoroughly manage defects that may have a direct impact on profits and losses of the project. The concrete pavement often has defective road joints. Joints are placed in the pavement to respond to concrete



저히 하고 있다.

도로 콘크리트 포장 시 흔하게 생기는 하자는 좁은 파손. 콘크리트 수축·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줄눈은 겨울철 제설 작업을 위해 뿌리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쉽게 파손된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내구성을 강화하고자 혼화제 적정성 실험을 여러 차례 실시하는 등 고의 노력을 펼쳤다. 또 지반 침하 및 콘크리트 수축·팽창 등으로 인한 터널 천장 균열을 방지하고자 공동구 바닥을 철저히 시공하고,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시 배합 비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최적화했다.

현재 현장은 교량 3개소에 라텍스계 잠콘크리트(Latex Modified Concrete) 포장과 터널 2개소 내부 포장 및 토공부 포장, 터널 내부 터널 공사 및 부대공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오는 11월 준공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원주를 중부내륙권 거점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원주 기업 도시와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까지의 거리가 77분에서 54분으로 23분 단축되면서 약 1500억원의 물류비 절감과 대기오염 감소 등 연간 260억원의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그뿐 아니라 상습 정체 지점인 호법·여주·만중 전후 구간과 이천·여주·문막 구간의 교통 혼잡 해소도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상암에서 2018 동계올림픽 주경기장인 평창까지 1시간30분대로 단축시켜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50년에 가까운 현대건설 고속도로 건설 노하우가 집결된 제2영동고속도로 6공구 현장. 앞으로 이 현장이 우리 회사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자 대표 프로젝트로서 이름을 알릴길 응원한다.



(위) 지정터널 조명 트レイ 설치 모습. (아래) 605m 규모의 삼산교 전경.

## Interview

# “성공적인 현장 운영의 비결 ... 원활한 ‘소통’이죠!”

1968년 12월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50년여가까운 세월 동안 우수한 기술력을 쌓은 현대건설. 제2영동고속도로 6공구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은 경력 13년 이상의 도로공사 베테랑이었다. 공사를 적기에 준공해 내겠다는 책임감과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으로 똘똘한 현장 직원들과의 인터뷰.

### 도로공사 애스들이 뭉쳤다!

문진관 차장(이하 문 차장) 신갈-호법 간 확장공사(영동고속도로) 3공구 현장을 거쳐 제2영동고속도로 6공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소장님 이하 여기 모인 파트장 모두 고속도로 현장에서 전뺨가 굵은 직원들입니다. 소장님은 20년 근무기간 중 22년 넘게 도로공사를 해 온 도로 전문가이고, 품질 책임인 김해송 과장 역시 입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21년간 고속도로 현장에서만 근무했을 정도로 베테랑이에요. 공사 책임인 김영삼 차장 역시 언급하지 않으면 섭섭할 정도의 고속도로 현장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최동필 현장소장(이하 최 소장) 도로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공사가기 때문에 광장까지 1시간30분대로 단축시켜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50년에 가까운 현대건설 고속도로 건설 노하우가 집결된 제2영동고속도로 6공구 현장. 앞으로 이 현장이 우리 회사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자 대표 프로젝트로서 이름을 알릴길 응원한다.

김해송 과장(이하 김 과장) 공정률 80%를 남긴 지금까지도 비만 오면 낮이든 밤이든 소정날 이하 파트장들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고, 고속도로 현장에는 강고, 방호벽, 피림 등 없는 게 없어요. 다양한 공종이 모인 만큼 직원 간에 소통이 안 되면 현장이 빠져터질 수밖에 없죠. 도로공사는 전체를 보는 눈과 소통 능력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차장(이하 김 차장) 역시 우리 회사가 수행 중인 7공구와도 수시로 만나 협업하고 있습니다. 7공구와는 레미콘 공장부터 전기·건축 공사를 함께 추진하고 있고,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자주 공유합니다. 덕분에 두 공구 모두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의 기본, 소통

문 차장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근로자들과의 협력입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근로자들과 '인간 대 인간', '가족(家長)

대 가장'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지침으로 여름에는 파라솔, 제빙기를 설치하고, 겨울철에는 핫 팩, 간이휴게실, 난로를 설치해 짧은 시간이나마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죠. 지금까지 큰 안전사고가 없었던 것도 '감성 소통' 덕분이 것 같습니다.

홍성하 부장대우(이하 홍 부대) 우리 현장은 부서 이기주의가 없고, 소통과 단합이 잘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현장 단합의 비결 중 하나는 '화목(火木보일라)입니다. 산을 정비하며 나온 나무가 많다 보니 이를 활용해 보자는 취지로 화목보일러를 생각해냈죠. 사실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귀찮아요. 나무를 나르고, 쪼개고, 쌓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저녁과 새벽에 누군가는 장작을 넣어줘야 하니까요. 현장 직원들은 일과 후 톱질소리가 나면 직급 상관없이 너도나도 나서서 도와줬어요. 화목보일러 덕분에 뒤따르는 물론 연 1억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까지 봤습니다. 땀 흘린 후에는 참나무를 땀 화목보일러 위에 고기를 구우며 두런두런 대화를 나눴죠(웃음).

김과장 우리 현장에서는 농사도 짓습니다. 현장 사무소 유휴 토지에 상추, 방울토마토, 배추, 무 등을 배척히 심는데요. 최 소장 올해는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올 11월까지 작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가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 부대 소장님께서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BTO 사업의 특성상 소통을 특히 강조하세요. 원칙대로 치열하게 움직여야 하는 게 현장이지만, 즐거움 마음으로 일하면 힘들도 오르고 결과물도 좋아져요.

문 차장 맞습니다. 일을 조금 못하는 건 거브러워 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전 책임자로서 현장 직원, 근로자가 융화될 수 있도록 계속 해서 노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최 소장 올해는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올 11월까지 작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가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관 차장, 김해송 차장, 최동필 현장소장, 홍성하 부장대우, 김해송 과장(왼쪽부터)

## 현대건설 시공 국내 고속도로 대표 현장

1968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외의 크고 작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현대건설 (사보신문)에서는 우리 회사 국내 고속도로 대표 현장을 짚어봤다.

1960~70년대	1980~90년대	2000~2016년
<p>1968년 12월 경인고속도로 1970년 12월 경부고속도로 1970년 12월 호남고속도로 1971년 12월 영동고속도로(신갈-사평 간) 1973년 12월 호남-남해고속도로(전주-부산 간) 1978년 8월 구마고속도로(25공구)</p>	<p>1981년 12월 부마고속도로(2공구) 1984년 9월 88울림고속도로(2공구) 1994년 12월 부산도시고속도로(8공구) 1995년 1월 강원도시고속도로(4공구) 1999년 12월 중앙고속도로(안동-영주간)</p>	<p>2001년 12월 서해안고속도로(당진-서천 간) 2003년 12월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여주 간) 2003년 12월 천안-논산고속도로 2016년 11월 제2영동고속도로 준공 예정</p>



## 테마토크 2016 위풍당당 신입사원들

# 완생 향한 첫걸음 “회사의 미래,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올해 입사한 대졸 공채 신입사원 94명은 지난달 4일부터 3월 2일까지 8주간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받는다. 입문교육은 조직에 대해 소속감과 강한 자긍심을 키우고자 마련된 것으로, 신입사원이라면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신입사원의 눈빛엔 패기가 넘쳤다. <사보신문>은 지난 11일 신입사원 8인을 만나 취업 성공기와 입사 후 포부 등에 대해 들었다. 글=김만화 / 사진=이슬기



“하나 된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하라·김병재·천영호·서중환·엘레나·손영민·이호승·백민중(왼쪽부터).

### Q 좁은 취업문을 뚫고 입사에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호승** 인턴 준비를 할 때 현대건설의 시운전 관리 시스템(HPCM)에 대해 접하게 됐어요. 우리 회사가 HPCM을 현장 초기부터 활용해 효율적인 공사 진행이나 공정관리를 해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HPCM 프로그램을 보다 정교화하겠다’는 콘셉트로 면접 당시 적극적으로 어필했던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김병재** 저 역시 인턴 출신이에요. 지난해 상반기엔 UAE와 우리나라 정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 당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인턴으로 2개월 동안 일했어요. 그 현장은 현대건설이 수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꾸준히 회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했던 게 큰 도움이 됐어요.

**백민중** 저는 솔직하게 쓴 자소서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알아봐 주는 회사가 현대건설이었어요. 진심을 담아 솔직담백하게 면접을 본 덕분에 최종 합격한 것 같아요.

**서중환** 한마디로 ‘끈기’라고 생각해요.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올해 재지원해서 입사한 케이스예요. 작년엔 최종 면접에서 미끄러졌죠. 아쉬움과 미련이 많이 남

아 재도전하게 됐고 올해 꿈을 이뤘죠. 저는 스스로 애사심이 강하다고 자부해요.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며칠 전에 배경화면을 우리 회사 전경으로 바꾸기도 했어요(웃음).

### Q 수많은 기업 중 현대건설을 택한 이유는?

**손영민** 저는 다른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우리 회사 광고인도시 힐스테이트 오피스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현대건설 입사를 꿈꾸기 시작했죠. 그때 저를 많이 행겨주셨던 건축기사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 회사와 S사 모두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현대건설을 택했죠. 우리 회사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평소 건축은 사람과 가까운 공학이라 생각했고, 그에 맞는 회사 분위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회사는 ‘사람 배서’가 나는 곳이에요. 현대건설이라면 저의 미래를 함께 공유하고 꿈꿀 수 있는 조직이라고 확신했죠.

**천영호** 처음엔 군대식 문화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갔을 때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말 한마디, 밥 한 끼 더 챙겨주시려고 했어요. 어떤 의견이든 들어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엘레나** 외국인인 한국에 취업할 땐, 주로 번역사나 회화 강사 등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은 편이에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2년 동안 세무 관련 부서에서 경력을 쌓았어요. 이후 국가 장학생으로 발탁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다시 공부했죠. 모국에 있을 때부터 현대건설에 대한 의의 알고 있었어요. 해외에서도 현대건설의 위상은 이미 높아요. 지난해 힐스테이트 배구단 용병으로 활약했던 폴라라히모바(Polina Rahimova)도 우크라이나에선 실력 있는 선수로 통하죠. 한국은 제게 이미 친숙한 곳이에요. 우리 회사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보고 나선 붙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바로 지원했죠.

### Q 입문교육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을 꼽아주세요.

**서중환** 저는 RC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8년 동안 이와 관련된 공부를 해왔어요. 신입사원 입문교육 때 RC가를 직접 조립하고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재능이 없었죠. RC가가 대회출전용으로 쓰이기 위해서 먼저 차량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수업 때 모든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는데, 그 임무를 제게 맡기셨어요. 그때 많은 동기와 친해지기도 했고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죠.

**이호승** 새벽 2시까지 서킷 광고판을 만들며 동료애를 나눴죠. 수업 때 할당된 서킷 광고판이 45개였지만, 팀워크를 발휘해 60개까지 만들어냈어요. 살면서 의욕과 열정이 가장 넘쳤던 때였던 것 같아요.

**엘레나** 저 역시 그랬어요. 시간에 늘 쫓겼지만, 팀워크는 임무를 완수해 내는데 큰 에너지가 됐어요. ‘한국의 끈끈한 조직문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몸소 실감했죠.

**백민중** 저는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처음으로 현대건설 여자 배구단 경기를 본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응원도 열정적으로 했죠. 배구 경기가 생각보다 짜릿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양호진 선수의 팬이 됐습니다.

**정하라** 오늘 있었던 미얀마 태양광 랜턴 만들기요!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오전에 6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인턴이 끝나면 힘닿는 대로 더 많이 만들어보려고요.

### Q 조직의 팀워크를 위해선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서중환** ‘정면돌파’라고 생각해요. 피하면 어떤 관계든 이뤄질 수 없어요. 조직에선 때론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정신과 적극적인 자세도 중요하죠. 그래야 원팀이 될 수 있어요.

**손영민** 스펀지처럼 윗분들의 의견을 팔로우하는 게 중요해요. 직급이 높아지면 그 때마다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김병재** 저는 팔로업의 좋은 예가 ‘질문하기’라고 생각해요. 질문은 신입의 특권이자 배움의 자세죠. 내가 몰랐던 점을 바로 인정하는 자세이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 Q 신입사원으로서 포부 한마디.

**손영민** 올해 회사가 설립된 지 69주년이 됐는데요. 100주년이 됐을 때 회사의 역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백민중** 본사에서든, 현장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정하라** 매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직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파이팅!

**김병재**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을 아프리카 시장에 수출하는 데 꼭 기여하겠습니다.

**서중환** 입사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신입사원 교육현장 들여다보기

1 워크리 프로젝트인 ‘H-레이싱’에서 신입사원들은 팀별로 직접 만든 RC가를 선보였다. 2 지난 1월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의 경기에 참석, 열띤 응원을 펼쳤다. 3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신입사원들.



## 계동 사람들 김수근 건축사무실을 갤러리로 만든 아라리오그룹 김창일 회장

# “공간사육은 내 꿈이자 운명이었다”

한국 1세대 건축가 김수근(1931~86)이 설계한 서울 종로구 원서동 공간(등록문화재 제586호)이 미술관으로 새롭게 단장해 2014년 9월 문을 열었다. 이름은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계동사육에서 도보로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이웃집이다. 아라리오그룹 김창일 회장은 2013년 11월 이곳을 사들였다. 공간사육은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함께 한국 현대 건축물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2013년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매물로 나왔지만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최저 매각가격은 150억원이었다. 김 회장은 “버려진 건축물에 예술의 힘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라는 물음을 사회에 던지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공간사육 매입한 후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 Q 아라리오뮤지엄은 어떤 곳인가요.

한국에서 몇 안 되는 개인 컬렉터의 프로젝트 장소이자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우리나라 현대 건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지요. 제가 지난 35년간 수집한 3700여 점의 현대미술 컬렉션 중에서도 공간과 잘 어울리는 작품을 엄선해 전시 중입니다.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는 저의 꿈이 현실화된

### 아라리오그룹 김창일 회장 약력

1951	서울 출생
1986	아라리오산업 창립
2006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오픈
2006~14	뉴욕 미술잡지 (아트뉴스)가 선정한 200대 컬렉터
2014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개관



1 아라리오그룹 김창일 회장(왼쪽).  
2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아래)는 문화재로 지정된 공간사육의 내부를 변형 없이 보존해 전시 공간으로 꾸며졌다.



첫 공간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큼니다.

### Q 낮은 공간사육을 선택한 이유는.

LA 현대미술관에 방문하고 나서 미술관 건립에 대한 꿈을 막연하게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뉴욕의 갤러리 ‘디아 비콘(Dia:Beacon)’을 보고 꿈을 실제로 이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공간사육을 매입할 당시 저는 제주에 뮤지엄 건립을 함께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렇게 훌륭한 건축 예술품이 매물로 나왔다는 것과 그것이 경매에서 유찰되었다는 소식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이 건물을 매입한 뒤에 복잡한 과정은 일일이 생각지 않았어요. 공간사육을 만난 게 그저 제 운명이었고, 이 공간을 통해 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중요했죠.

### Q 공간사육을 리모델링할 때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제주도에 개관한 뮤지엄의 경우 설계부터 디자인, 못 박는 것 하나까지 모든 것을 제가 계획했던 방식대로 결정하고 진행했어요. 하지만 공간사육은 설계가 워낙 독특하면서도 훌륭했어요. 기존 건축물의 구조와 흔적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간사육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말이죠.

### 아티스트가 말하는 작품 감상법

김창일 회장은 미술 작가이자 파워 컬렉터로도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은 미국의 유력 미술잡지인 (아트뉴스)의 200대 컬렉터(The ARTnews 200 top collectors)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데이미언 허스트, 장 미셸 바스키아, 트레이시 에민 등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들이 그의 갤러리와 수장고에 가득하다.

### Q 미술과 친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예술 행위에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상상력은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재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에 전시돼 있는 백남준 작가의 <노마드>를 예로 들어 볼게요. 이 작품에는 자동차 안에 위성안테나와 TV 화면이 달려 있어요. <노마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자그마치 30년 전 일입니다. 그랜 상상 속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네 현실이 됐죠. 예술은 일상입니다. 우리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죠. 오늘부터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을 꼼꼼히 둘러보세요.



김창일 회장이 소유한 ©키스 해링의 Untitled (Breakers).

### Q 현대미술을 어려워하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

일단 미술작품을 자주 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보았을 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느낌을 주는 작품이 있다면, 아주 잠깐의 시간을 내서라도 공부해 보세요.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 중 무엇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정보를 가지고 보는 것은 또 다른 감상법이 될 수 있어요. 또 큐레이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Q 다음 주면 경칩입니다. 봄을 맞아 현대건설 직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 주신다면.

자연이 가진 생명력이야말로 일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봄, 조금은 다른 하루를 보내길 원하신다면 예술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은 어떨까요. 예술은 먼 곳이 아닌, 바로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글=김민화 / 사진=아라리오그룹 제공

## 주니어보드 발언대

# 현대건설,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라!

우리 회사가 글로벌 톱 건설사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23기 주니어보드가 제안합니다. <편집실>

경제의 저성장, 유가 하락, 이란 경제개방 등의 혼재된 위험과 기회 요소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최근 몇몇 글로벌 기업과 선진 국가들은 이 새로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그것이다.

### 급진적인 변화의 물결 4차 산업혁명

과거 석탄과 터빈을 활용한 기계화는 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조립라인을 통한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한 2차 산업혁명,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동제어를 가능하게 했던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역

사 속에서나 보게 될지도 모른다. 혹자는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은 같은 인터넷 기반의 사회인데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무인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나노, 바이오공학 등 기술 진보가 급진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회 구조와 시스템에 있어 전체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해 발표한 ‘중국 제조 2025’ 전략과 독일이 최근 차세대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춘 전략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는 수요와 공급의 연결망이 촘촘하게 짜맞춰지는 것이다. 이것을 온디맨드방식(On demand,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 에어비앤비(숙박 제공)나 카카오택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비스를 시작하지 얼마 안됐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기존의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디맨드 방식의 서비스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산업 구조를 계속 바꿔놓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직종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지난달 막을 내린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5년 내에 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자세

하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측면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에 적합한 작업환경, 로봇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무공간, 실시간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의료서비스, 무인자동차와 정보를 주고받는 스마트빌딩 등이 그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말 그대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마치 스마트폰 앱(APP)처럼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서비스로 교체하거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것이다. 우리 회사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손을 내

밀었다. 지난 18일 SK텔레콤과 스마트홈 관련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 회사는 향후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한 첨단 지능형 힐스테이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칼로 싸우는 자들에게는 화살이 혁신이고, 화살로 싸우는 자들에게는 총이 혁신이다. 혁신하는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것이 글로벌 톱 건설사로 도약할 수 있는 열쇠다. 이를 위해 변화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발굴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는 말처럼 선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물리적·정신적 공간 마련에 고심할 때다.

23기 주니어보드 의장  
범무실 안동수 과장



## 변호사가 꿈인 **홍제형 멘티(중2)** + 법무법인 소헌 **남기룡 변호사**



1월은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에 '전문가와의 만남'이 가득한 달이었다. 그중에서도 7조는 법무법인 소헌 소속의 남기룡 변호사와의 만남을 가졌다. 김기재 임직원 멘토(인사실)와의 주선으로 진행된 이 자리는 홍제형 청소년 멘티가 꿈을 향해 첫발을 디딜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홍제형군은 평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지만 사람들 앞에서 꿈을 말하는 게 쑥스러웠다고 한다. 그런 홍군에게 남기룡 변호사는 힘들었던 수험생 시절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판사·검사·변호사의 차이, 국내외 변호사가 되는 방법, 변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조언했다. 특히 청소년 멘티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맡고 있는 소송과 자문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려 자상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홍제형군 역시 남 변호사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치지 싫다는 듯 귀를 쫑긋 기울이며 호기심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남기룡 변호사는 “변호사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글로 써보는 것”이라고 논술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막연하게 되고 싶었던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홍제형 멘티. 남기룡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꿈을 향한 열망이 더욱 커졌다는 멘티의 꿈이 훗날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 간호사가 꿈인 **김효주 멘티(고2)** + 서울대병원 **김선미 간호사**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15조 김효주 청소년 멘티의 장래 희망은 병원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진료를 돕는 간호사. 김효주 멘티를 위해 지난 달 30일 신남희 임직원 멘토(해외마케팅2실)가 서울대병원 김선미 간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간호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김효주 멘티는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궁금했던 것들을 A4 용지 가득 작성해 왔다. 전문가의 말을 가슴 깊숙이 새기기 위해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열의를 보인 효주양. 그런 멘티의 열정에 김선미 간호사 역시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성껏 질문에 응했다.

김선미 간호사는 “간호사는 업무 강도가 센 편이라 사명식이 없는 힘들다”며 “실력뿐 아니라 환자들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신남희 멘토는 “효주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질문에 깜짝 놀랐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효주가 원하는 꿈에 한발 더 다가선 것 같아 기쁘다”고 환하게 웃었다. 전문가의 만남을 뒤로 하고 집으로 향하는 김효주 양의 얼굴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전문가와의 만남' 꿈을 향해도전하다

# Challenge Your Limits!

우리 회사가 건설업계 최초로 시작한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은 청소년, 대학생, 우리 회사 직원이 3인 1조를 이뤄 청소년의 꿈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장기 교육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발족한 2기 봉사단 48명은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청소년 멘티의 꿈을 응원해 왔다. 특히 올 1월부터 16명의 청소년 멘티들이 장래 희망으로 삼고 있는 현직 변호사, 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엔 '대학생 홍보서포터스'가 동행해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 왔다.

글·사진=대학생 홍보서포터스



## 경찰관이 꿈인 **장덕환 멘티(고2)** + 서울지방경찰청 **김현환·허원도 경찰관**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12조는 경찰관이 되고 싶은 장덕환 멘티를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전교 상위권을 차지하는 장덕환군은 구체적인 장래 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몰라 늘 고민이었다고. 그런 장덕환 멘티를 위해 조현욱 임직원 멘토(건축사업지원실)가 서울지방경찰청 김현환·허원도 경찰관을 초청했다. 현직에 있는 경찰관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은 만큼 장덕환 멘티 역시 시종일관 진지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대테러 대응을 맡고 있는 김현환·허원도 경찰관은 우리나라에선 테러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에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말씀을 열었다. 또한 경찰행정관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교와 경찰행정학과 진학 등 다양한 길이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뒤 언제 가장 뿌듯했냐는 멘티의 질문에 “흉악한 범죄자를 검거했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뿌듯하다”며 “공지와 자부심을 일을 하는 원동력”이라며 투철한 직업정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덕환 멘티는 “TV나 영화에서만 경찰관을 보다가 실제로 경찰 행정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니 신기하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처럼 꾸준하게 성적을 유지해 경찰대나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해 꼭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 건축가가 꿈인 **이후빈 멘티(고2)** + 대왕레미콘 견학

이후빈 멘티가 소속된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1조는 지난 달 30일 이른 오전부터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대왕레미콘 공장을 견학했다. 김재정 멘토(민간사업실)가 청소년 멘티의 현장 감각을 키우기 위해 일반인들은 쉽게 들어가기 힘든 레미콘 공장을 섭외한 것.

유명 건축가가 되는 것이 꿈인 이후빈 멘티는 평소 유명 건축물 검색이 취미일 정도로 건축 분야에 폭 빠져 있다. 그래서인지 견학에 나선 후 빈군의 모습이 사뭇 설레어 보였다. 이후빈군은 처음 방문하는 레미콘 공장의 모습이 신기한 듯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일주일간 철저히 준비했다는 질문의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았다. 함께한 멘토와 공장 관계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다.

레미콘 공장의 이곳저곳을 돌아본 이후빈 멘티는 “건축물을 이루는 주재료인 레미콘의 혼합·배합·구성 재료 등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향후 산업체 특기전형으로 야간 전문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며 밝게 웃었다.

함께 자리한 김재정 멘토 역시 “후빈이가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 ITQ 실기시험 등 관련 자격증도 열심히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미술관이나 모델하우스 등 현장 실습 위주의 멘토링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수제비 돌’처럼 가라앉지 않고, 물 위를 띄워 먼 고지에 도달하며 한계를 극복하고 싶다는 이후빈 멘티와 김재정·윤상현 멘토. 앞으로도 1조 조원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꿈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며 손을 맞잡았다.



## 교통전문가가 꿈인 **김동민 멘티(고2)** + 연구개발본부 **김지훈 대리·전장우 사원**

힐스테이트 꿈키움 봉사단 11조의 김동민 멘티의 꿈은 ‘교통전문가’. 김동민 멘티는 항공관제탑에서 일하는 교통전문가가 되기 위해 관련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소 생소한 분야의 도전이기에 이근주 임직원 멘토(인프라연구개발실)는 같은 사업본부의 교통공학 전문가 김지훈 대리와 전장우 사원을 초대에 청소년 멘티의 꿈을 응원했다.

쑥스러움이 많은 탓에 질문하기를 꺼리는 김동민 멘티를 위해 이들은 식사를 하며 친근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동민군은 관련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어떤 전공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세부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평소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다. 11조의 열띤 대화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도 계속됐다.

김동민 멘티는 “A4 종이를 여러 장 채울 정도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향후 진로를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동네 형처럼 조언을 아끼지 않는 멘토들 덕분에 조금씩 꿈을 찾아가고 있는 김동민 멘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형들과 함께 동민군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멋지게 날아오르길 간절히 바라본다.



## 문화칼럼

# 맛있으면 칼로리 Zero! 대세 먹거리 大 戰

먹방에 이어 쿡방이 대세. 스타 셰프처럼 근사하지 않아도 내 입맛에 맞으면 그만이다. 집에서 요리를 즐기는 셀프 쿡킹족이 증가하고 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프리미엄 라면부터 곰손도 금손으로 만들어 줄 웰메이드 간편식을 소개한다. 글=이운정<우먼센스> 기자



### 짜장 vs 짬뽕 '고퀄' 라면 전쟁

비루한 음식의 대명사였던 라면이 중국집을 위협하는 고퀄리티 요리로 진화해 바야흐로 라면 1500원 시대가 열렸다. 중식 셰프 열풍을 타고 등장한 짜장라면과 짬뽕라면이 그 주인공. 지난해 12월 '오뚜기 진짬뽕'이 판매율 17.9%로 라면 판매율 1위를 차지했고, '농심 맛짬뽕'은 15.3%를 기록하며 신라면을 제쳤다.



'오뚜기 진짬뽕'은 닭 사골 육수에 센 불에서 볶은 오징어홍합, 미더덕 등 각종 해산물을 우려내 시원하고 개운한 국물 맛을 자랑한다. 중화요리의 불맛을 재현한 '농심 맛짬뽕'은 큼지막하게 썬 채소와 해산물을 우린 국물이 두꺼운 면발과 잘 어울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짬뽕의 영원한 라이벌인 짜장면은 프리미엄 짜장라면으로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짜장라면 전체 매출은 2810억원으로 전년보다 46.7% 증가했다.

무인도에 갇힌 무한도전 멤버들을 사로잡았던 '짜왕'이 짜장라면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다. 두껍고 쫄깃한 면발과 고온으로 볶은 간짜장 맛을 살린 '짜왕'은 '야채함미유'로 품미 작렬하는 짜장 소스를 완성했다.

예약조차 어렵기로 이름난 서울 연희

동 '목란'의 이연복 셰프를 모델로 내세운 '팔도 짜장면'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 기획해 국산 돼지고기를 건더기로 넣었으며 30년 노하우를 담은 액상 수프로 본연의 짜장맛을 살렸다.

### PB라고 무시 말라 편의점표 맛깔나는 한끼

시간을 아끼기 위해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이 즐겨 먹는 메뉴 중 하나인 편의점 도시락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 싼 맛에 참고 먹는 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해자스럽다'라는 말을 아는지, 새로 생긴 줄임말이 아니라 '음식의 구성이 풍성하고 알차다'라는 말이다. 이 표현을 만들어낸 GS25의 '김해자 진수성찬 도시락'은 3500원대로 흰밥과 떡갈비, 돼지불고기, 치킨, 나물 3종, 볶음김치, 계란말이 등 8종 반찬으로 구성된 진수성찬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다.

'응답하라 1988' 덕선의 야무진 캐릭터에 부합하는 세븐 일레븐의 헤리 도시락은 출시 후 6개월 만에 1700만 개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헤리 11찬 도시락'은 맥적구이, 닭다리 통살 튀김, 버섯

돈육 볶음부터 멸치볶음, 김치 등의 밑반찬까지 알차게 담았다.

먹어보지 않았지만 웬지 단맛이 날 것 같은 도시락도 있다. 바로 '집밥 백선생' 백종원 도시락이다. CU 백종원 도시락은 백종원이 상품 기획부터 시식까지 참여해 한 달 만에 216만 개라는 판매고를 올렸다. 4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닭가슴살 정식' '매콤 불고기 정식' '백종원 환관 도시락' 3종류로 판매하고 있다.

### 정성이 깃든 간편식으로 웰메이드 집밥

엄마의 따뜻한 집밥이 그리운 싱글족, 재료에게 죄 짓는 기분이 드는 '요리고자'에게 깊은 맛이 나는 집밥을 차려주는 고마운 간편식이 출시되고 있다. 과장조금 더해 라면 끓이는 난이도와 비슷한 방법으로 건강한 요리가 완성되니 눈여겨보길.



고향의 맛을 떠올리게 하는 신송식품의 '즉석 된장국 3종'은 컵라면처럼 생긴 용기에 뜨거운 물 170mL를 붓고 2분간 기다리는 방식. '시원한 시금치 된장국' '구수한 우거지 된장국' '개운한 미역 된장국' 3종으로 여행 갈 때도 챙겨가기 좋다.

2박3일을 푹 고은 사골국을 재현한 올가홀푸드 올라 '진한 국물 맛이 살아 있는 즉석탕' 시리즈 3종은 한우 갈비탕, 한우 우족탕, 닭곰탕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무항생제 한우와 닭을 사용했으며 화학첨가물을 배제해 보양식으로 추천한다.

특히 한우 갈비탕은 장시간 고아낸

100% 한우 육수에 갈비와 양지 부위 고기를 고명으로 넣었으며 갈비뼈와 살코기를 분리해 편하게 먹을 수 있다. 이마트의 간편 가정식 PB브랜드인 피코크는 진한 사골 육수에 고소한 치즈 향이 어우러진 '진한 부대찌개'를 판매하고 있다. 맵지 않고 시원한 감칠맛이 나며 목은지를 넣어 개운한 뒷맛을 낸다.

## 개알 같은 꿀팁은 덤! 셰프의 요리대백과

###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4

백종원 저음-서울문화사 대한민국에 집밥 열풍을 일으킨 '백주부' 백종원의 집밥 메뉴 두 번째 편. 만능 간장 레서피 외에도 만두전, 고등어 김치찌개 등 방송에 소개되어 화제가 됐던 메뉴들의 상세하고 정확한 레서피가 담겨 있다. 누구나 따라하기 좋은 쉽고 간단한 레서피로 요리 불능 20대부터 요리 베테랑 주부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제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만능간장 활용 메뉴가 포함돼 있는 시크릿 북이다.



주목받았던 양지훈 셰프의 요리 에세이 북. 미국에서의 요리 보조 막내 생활부터 아부다비 인터콘티넨털 호텔, 두바이 피에르 가네르, 한국 최고 양식 레스토랑 루카 511까지 그의 요리 인생과 한 입 프렌치 요리, 수박 껍질 피클 국수, 양지훈표 특급 라면 등 독특하고 색다른 요리 레서피를 담았다.

### 이맛에요리 샘 김 저음-MY

스타 셰프 샘 김의 요리 에세이. 요리가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말하는 그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요리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책 곳곳에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샘 김의 레서피가 소개되는데 서투른 솜씨지만 정성을 담아 요리에 도전한 남자들의 사연이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 밭무리온나 양지훈 저음-인터오리진

무한도전 뉴욕 특집에서 구수한 사투리로

## 총알 배송이란 이런 것 상상 식재료의 신선함

퇴근길, 마트에 들러 여러 제품을 비교해 볼 것 없이 점심시간 10분만 투자하면 내가 직접 고른 식품들로 이루어진 장바구니를 받아들 수 있다. 가격은 저렴하고 배송은 손실과도 같으니 워킹맘, 싱글족에게 환영 받을 듯. 신선한 산지 직송 채소부터 전국구 맛집 대표 메뉴도 클리닉 번으로 배달되니 세상 참 좋아졌다.

### 유기농 식품을 선택 배송으로!

#### 마켓컬리(market.kurly.com)

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을 그대로 옮긴 듯 친환경 신선식품, 무항생제 정육 등 건강한 식재료를 판매한다. 밤 11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달되며 배송 기사가 제품 인증 샷과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내주는 감동적인 서비스가 특징이다. 회사는 이 서비스를 '선택배송'이라고 부른다. 선택별은 새벽하늘에 보이는 금성을 말한다. 원산지과 공급원, 포장일이 적혀 있으며 상품 수령 후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적립금 환불이나 새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 비싼 수입 과일도 저렴하게!

#### 만나몰(www.mannamall.com)

49년간 농산물을 수입해 온 진원무역이 운영하는 만나몰은 중간거래 과정을 줄여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수입 과일을 판매하는 과일 전문 쇼핑몰이다. 플로리다 자몽, 태국 망고, 제주 제스프리 골드 키위 등 산지 직송 과일을 집에서 받아들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과일용 이용한 디저트와 음료 등의 다양한 레서피를 소개하고 있다.



### 까다롭게 엄선한 식재료!

#### 배민프레시(www.baeminfresh.com)

과일, 채소, 빵, 반찬 등 다양한 먹거리를 배송하는 배민프레시는 유명 베이커리의 빵, 입소문 난 반찬, 프리미엄 도시락 등 엄선한 식재료를 판매하는 곳. 코스트코에서만 판매하는 제품들을 연회비 없이 구입할 수 있어 원스톱 정보기가 가능하다.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요일마다 받아볼 수 있는 정기배송 서비스도 제공하니 워킹맘에게 유용할 듯.



## 정겨운 삶 오밀조밀 ... 여기는 '부산의산토리니'



부산의 산토리니, 레고마을, 마추픽추 - 감천동 문화마을의 별명들이다. 마을 어귀 감천고개에서 감천동을 내려다봤다. 건물 외벽에 칠한 푸른색이 많이 바래 그리스 산토리니보다는 오밀조밀한 '레고마을'이 더 연상됐다.

원래 감천동은 주민 50~60명이 모여 살던 호젓한 산촌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터지자 피란민이 들이닥쳤다. 1957년에는 부산시 보수동 일대에 집단 천막·판자촌을 형성했던 민족종교의 일종인 태극교도 피란민 1000여 세대가 항구 미관상 문제로 일제히 감천동으로 옮기기도 했다. 태극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도시 계획을 통해 감천동은 현재에 가까운 외양을 갖추게 됐다. 온 동네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좁은 골목부터 피란민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식수를 받았던 우물터 등 동네 곳곳에서 당시 생활상이 켜켜이 묻어났다.

1960~80년대 더디게 변모해 온 감천동은 90년대를 맞으며 변화를 멈췄다. 산복도로 개발이 공식화되면서 고도가 높은 산동네에서 도로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건립이 통제됐기 때문이다. 감천동 문화마을 개발 초기에는 관광객을 꺼리는 주민도 많았다고 한다. 공색한 산동네 살림살이를 남에게 보이기 싫은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2009~2010년 젊은 예술가들이 감천동을 새단장하면서 달동네는 문화마을로 거듭났다. 그들은 예술작품을 설치했고, 고장난 문, 벗겨진 벽 등 마을 경관을 재 정비했다. 예술과 일상의 조화도 빼어나다. 마을 입구에 평범한 이층집 난간에는 반인반조(半人半鳥)가 떼지어 앉아 있었다. 하늘마루 옥상에서는 용두산과 부산항, 감천항을 아우르는 부산 전경을 훤히 내다볼 수 있다. 마을 초입에 위치한 마을정보센터에서는 2000원에 지도를 판매한다. '스텝 투어' 형식으로 마을을 구석구석 꼼꼼히 둘러보고 싶다면 구입해도 좋겠다.



1 마을의 상징과 같은 작품. 감천동 문화마을에 오면 알록달록 물고기 떼를 쉽게 만날 수 있다. 2 1957년의 감천동 모습. [부산시 제공] 3 감천초교 앞 감천고개에서 내려다본 감천동 전경. 오밀조밀 모여 붙은 집집마다 가난하되 인정 많은 산동네 주민의 삶이 배어 있다.